



December 15, 2021 (Wednesday), 18:00 c.t.  
Wilhelmstr. 133, Room 30

**Prof. Hyungdae Lee (Korea University)**

18세기 조선 선비들의 우정론

[The Concept of Friendship under the Literati of Choson in 18th Century]  
(in Korean)

**Abstract:**

대체로 조선전기까지의 우정론은 도(道)나 뜻(志)을 벗 삼는다는 식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7세기 허균을 기점으로 하여 18세기의 연암 그룹에 이르면, 조선의 우정론은 크게 변모한다. 관념에서 실재로, 추상에서 구체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이 특강에서는 18세기 우정론의 양상들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참된 교유의 사례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학 작품을 통해 가식적인 우정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참된 우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의 면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Hyungdae Lee**

Hyungdae Lee earned his Ph.D. from Korea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1998, writing a thesis on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He currently is working as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teaching korean classical poetry. In his teaching, he looks at how classical literature can help with answering questions about current problematic realities in Korea and which wisdom can be gained through studying the literature in this aspect. Among his published works are „한국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신라인의 마음, 신라인의 노래“ and „조선 왕실의 문학“.